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5. 7.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도시계획시설(도로/테크노밸리, 광장)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5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환 구

도시계획시설(도로/테크노밸리, 광장)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5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교통량과 장래 교 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테크노밸리 남측과 갑천고 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대하여 2006년 12월 도시계획시설 (도로, 광장)로 변경결정 하였으나,
- 국가하천인 갑천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명품교량(가칭 한빛대교)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교량 주탑 위치변경에 따른 대로2-3호선 노선연장, 주행안전성과 시거 확보를 위한 교통광장의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
-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을 위 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대전 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.

【관련법규】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입안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(지방의회 의견청취)

2. 주요내용

가. 결정조서

○도 로

	규모					연장				주 요	최 초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경과지	결정일	비고
기정	대로	2	3	30	주간선	2,137	중로1-6	광장	일반도로	-	′06.12.29	테크노밸리 단지내도로
변경	대로	2	3	30	주간선	2,218	중로1-6	광장	일반도로	-	-	종점변경 연장증가

○광 장

구분	도 면	시설명	위치 .		면적(m²)	최 초	비고	
1 4	표시번호		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··/
변경	113	교통광장 (교차점광장)	대덕구 신대동 498번지	57,299	증)10,012	67,311	′06.12.29	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

나. 결정(변경) 사유서

○도 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2-3호선	대로2-3호선	조저브 여자주가	갑천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명품교량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반영에 따른 대로2-3호선 (종점부) 연장증가

○광 장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13	교통광장 (교차점광장)	면적증가 (중 10,012㎡)	대로2-3호선 종점부 연장증가에 따른 접속 및 진출입시설의 주행안정성과 시거확보를 위해 교통광장의 면적 변경.

3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6년 12월 테크노밸리 남측과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였으나,
- 실시설계 결과, 갑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주탑 위치변경에 따른 노선연장과 주행의 안전성과 시거확보를 위해 교통광장 면적 일부를 확장하는 사항임.
- 본 의견청취의 경우 대로 2-3호선 종점부에 81미터의 노선을 연장하고 약 1만 제곱미터의 교통광장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 으로 추가결정시 대덕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천변고속화도로와 주변도로의 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당초 524억원이던 사업비가 약 84억원이 증가된 608억원이 소요되나 본 사업은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선정되어 전액 국비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본 공사가 원활히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국비확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판단되며,
-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가 지난 5월 1일에 부분 준공되어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미 개설되어 이 일대가 출퇴근길에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입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.